

“건강한 생태도시 조성...살맛나는 곡성 만들겠다”

이상철

곡성군수

민선8기 이상철 곡성군수가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이라는 군정 목표를 내세우고 힘차게 출발했다. 이 군수는 청년 주거 지원, 지역 경제 순환 체계 구축, 공동체 활성화, 창의교육 학습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자족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균형 성장론’을 꺼내들었다. 3개 권역별로 확실하게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을 넘어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큰 틀에서는 권역간 상보적인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 해결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한 발짝 더 빠른 행보를 다짐했다.



주요 공약

-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민관산학 협력단 구성 ▲군민 행복수당 도입 ▲청년 창업 공유 사무실 지원 ▲청년 스마트 빌리지 및 청년 유튜브마 마을 조성 ▲3개 권역별 전략 사업 강화 ▲곡성형 창의 교육 완성 ▲권역별 어린이 놀이터 조성 ▲청소년 문화 바꾸어 카드 지원 ▲생태도서관 건립 ▲마을공동체 고도화 및 활성화 ▲권역별 어르신 건강관리센터 건립 ▲출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바꾸어카드 지원 확대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지원시스템 구축 ▲섬진강변 뱀기개발사업 ▲가정역권 미디어 아트, 야간 조명 관광 거점 조성 ▲스포츠타운 조성 ▲곡성을 문화거리 조성 ▲음식문화관 건립 ▲농업 부문 예산 1천억 원 시대 실현 ▲농촌 일손 부족 해결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농특산물 유통 융복합 플랫폼 구축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및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 ▲명품 농특산물 브랜드화 ▲돈 버는 산림소득 정책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군민 편의·현장 중심 행정 운영 ▲체계적인 조직 진단 및 능력 중심 인사 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 혁신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

이상철이 걸어온 길

- ▲조대부고 졸업 ▲조선대 토목공학과 중퇴 ▲곡성읍청년회 1~2대 회장 ▲곡성군청년회의소 회장 ▲제5~6대 곡성군의회 의원 ▲제6대 곡성군의회 의장 ▲제11대 전남도의회 의원

◇행복 도시, 살맛나는 활력 도시

민선8기 곡성군은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유입을 최대화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보다 파격적으로 추진한다. 누구나 즐겁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먼저 군민 행복 수당을 도입한다. 주민 누구나 게나 최소한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다. 빠른 시행을 위해 일단 사회보장협의제도 신설이 가능한 농촌 기본 소득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분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행복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러스틱 라이프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창업과 거주 기반을 제공한다. 도시 청년들이 곡성에 터를 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공유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청년들이 모여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즐거운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 100명이 모여 사는 청백 스마트 빌리지도 조성한다. 청백 스마트 빌리지가 성공하면 청년 1,000명이 모여 사는 청년 유튜브마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초·중·고를 곡성에서 나온 청년들이 곡성에 정착하면 주거지를 우선 지원하는 등 ‘어여의 귀환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다.

◇학습생태계 확대

민선7기 핵심 시책으로 추진됐던 창의 교육 학습 생태계는 더욱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곡성미래교육재단을 중심으로 지역 전체를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 전 생애에 걸친 학습공동체로 묶어내는데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숲 교육과 예술 교육은 대상을 확대하고 더욱 전문화한다. 꿈키움마루는 코딩, 디자인, 수학놀이터 등 미래에 유망한 직업적 역량을 키우는 4차 산업 진로직업 플랫폼으로 활성화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강사로 양성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인적 자원이 선순환할 수 있는 곡성형 교

지방소멸 대응 민관산학 협력단 구성

행복수당 도입·창업사무실 지원

권역별 어르신 건강관리센터 건립

농업 부문 예산 1,000억 시대 실현

군민 편의·현장 중심 행정 최우선

◇3개 권역별 차별화 전략 강화

곡성군은 타 시·군과 달리 생활권이 3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곡성군에서는 기존에도 권역별 전략 사업을 펼쳐왔다. 민선8기 곡성군은 이를 더욱 차별화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확실한 경쟁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시장의 기능이 완전하지 못하고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지역에서 거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후방 효과를 노리는 ‘불균형 성장론’이 전제돼 있다.

곡성읍권은 교육, 문화, 관광, 청년창업의 중심지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 기본적인 생활 중심지로서의 여건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 증대의 거점을 삼겠다는 것이다.

육곡권역은 미래 전략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운곡특화농공단지, 스마트팜, 청년농인큐베이션

허브센터 등을 활성화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석곡권역은 생태 힐링 관광벨트와 흑돼지 특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숲 놀이터와 이색적인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내륙어촌강마을 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도시민의 휴일 에코 여행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농특산물 융복합 플랫폼 조성

민선8기 곡성군은 2022년 현재 833억 원 가량의 농림업 부문 예산을 민선8기 내에 1,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증가된 예산은 주로 미래 농업을 선도할 농업의 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먼저 농특산물 유통 안정화를 위한 융복합 플랫폼 조성에 나선다. 전통적인 농업이 생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가공과 체험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농산물이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유통망에는 지자체의 관심과 역할이 미미했다. 이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곡성군은 온라인 상거래와 마케팅 비용 등을 농가에 지원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유통 플랫폼을 만들어 농가의 소득을 높일 것이라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의 산업적 경계를 더욱 넓히는 일에도 힘을 쏟는다. 농업의 조점을 ‘생산성’에서 ‘소비성’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게 농업을 4차 산업과 융합하는 것이다. 일단 낮은 단계로 스마트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들에게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한다.

곡성군은 이후 ‘데이터 농업’이라는 높은 수준의 4차 농업 혁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원하고, 어떤 가치를 소비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해 그에 맞춰 농산물을 생산하고 관련 제품을 개발·유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 종사자를 생산자, 유통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IT 전문가 등으로 다양화한다면 젊은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곡성다움’ 관광 개발

관광 분야에서 이상철 군수는 가장 곡성다운 콘텐츠가 여행객의 감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메가 트렌드의 흐름은 농치지 않되 남들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곡성군이 가지고 있는 즐길거리를 더욱 돋보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공약이 전선지중화 사업, 섬진강 수변 공원 조성, 대황강 수변관광벨트 조성이다. 민선8기 곡성군은 이들을 소위 ‘뺨기개발사업’이라고 부른다. 개발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천혜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정비하는 것에 가깝다. 이를 통해 자연과 생태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가정역 주변은 야간 조명과 미디어아트를 도입해 밤이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조성한다. 또한 기차마을 목표 고객을 어린이로 통합하고 이에 맞춰 어린이 중심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보완함으로써 전국 규모의 테마공원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감동 행정

이상철 군수는 군정이 자치단체 중심이 아니라 주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 사회가 주체로 나설수록 공공서비스에 주민의 수요가 보다 정확히 반영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의 자치 역량이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치와 통합의 행정을 강조하며 군민 편의의 중심, 현장 중심 행정을 예고하고 있다. 조직 운영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취임사에서 공약 조기 이행과 새로운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군인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실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철 군수는 “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에 초점을 둔 노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언제’를 중시하는 노우엔도 중요하다”며 “현재 지방과 농촌은 존재 자체가 경각에 달려있다. 한 발짝 더 빠른 행보로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매력적이고 살맛나는 곡성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곡성=한정길 기자

(왼쪽부터)
▶이상철 군수가 마을을 찾아 군민과 소통하고 있다.
▶이상철 군수가 문화누리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상철 군수 부부가 뚝방마켓을 방문해 물건을 사고 있다. /곡성군 제공

